

보도일시 (인터넷) 2024. 2. 5.(월) 11:00,
(지면) 2024. 2. 6.(화) 조간

배포 2024. 2. 5.(월) 06:00

자동차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신조 초대형 선박 확충 지원

- 10,800CEU급 자동차운반선 확보를 위한 공공선주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공공선주사업'으로 신조 발주하는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현대글로벌비스 간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2월 6일(화) 오후 4시 평택항에서 있을 예정이며, 체결식에는 강도형 장관도 참석한다.

* 공공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이 선박을 확보·소유하고, 선사에 합리적 가격에 임대(21~)

** 소형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Car Equivalent Unit)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 자동차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선사는 초기 선박 건조비용 부담 없이 신조 자동차운반선(2027년 인도 예정) 4척을 확보하고, 선박의 선적공간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수출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건조하는 자동차운반선은 소형차 기준 1만 800대를 선적(10,800CEU)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대형 자동차운반선으로, 선사의 운영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당 자동차운반선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EU 탄소배출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LNG 이중연료 추진이 가능한 친환경 선박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홍해 사태 및 선박 부족 등으로 인한 자동차 수출물류 정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 장관은 협약식 이후 평택항 내 자동차운반선을 살피는 등 자동차 수출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항만 근로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김성원 (044-200-5710)
	해운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홍원 (044-200-5715)

□ 추진 배경

- (선복량 관리에로) 해운산업의 수요는 경기에 민감한 반면 공급은 선박건조 기간, 정시성 등으로 조절이 어려워 신속한 수급 대응에 한계
 - * 운송수요 증가 → 운임상승, 신조발주 → 운송공급 증가 → 운임하락, 선박해체
 - (선박유출) 해운업 불황시 국적선사는 유동성 부족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저가에 선박매각 등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
 - * (불황기) 선가 하락 → 낮은 가격으로 선박 해외(그리스 등) 매각 및 국적선사 선복량 축소 → (호황기) 선가 상승 → 높은 가격으로 선박 재매입 및 국적선사 자본 해외유출
- ⇒ 선주사 도입을 통해 선박 해외 유출방지 및 선복량을 탄력적으로 조절, 합리적 가격으로 임대해 운영비용 등을 절감하여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 도모

□ 추진 현황

<선주사의 개념 및 특성>

- (개념) 높은 신용도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①선사 소유선박 구조조정 및 ②선사가 필요로 하는 선박 발주·대선 등을 수행하는 회사
- (특성) 해운업 불황기에 저가 선박을 건조매입하여 호황기에 고가로 매매하는 경기역행적 투자를 통한 선가차익과 함께 용선료가 주요 수익

- (시범사업) 민간 선주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 해진공 자체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위험요소 및 시장수요 등을 파악('21)
 - * 선사 소유선박(케미컬 탱커 2척)을 매입 후 합리적 가격에 재용선하는 사업 추진
 - (본사업) 해진공 내부에 선주사업 전담팀을 구성, 본격 사업 추진('22.3~)
- ⇒ '23년 현재 컨테이너선 12척, 케미컬 탱커선 5척 등 총 17척 확보 하였으며, 건조중인 2척을 제외한 15척 선사에 임대 운영중
- 1만 CEU급 자동차운반선 4척 추가 확보 추진('23.10 조선소에 기 발주)

□ 향후 계획

- 해진공에서 중고선 매입·신조선 발주 등을 통해 '26년까지 최대 50척까지 확대하고, 선주사업 전문회사 설립 추진*(~'26)
 - * 신속한 의사결정 및 해진공 리스크 절감을 위해 선주 전문회사 설립 용역 추진('24.3~)